

좋은 남편과 아내 만들기



김진희 위원
경남중재부
경남대 가정교육학과 교수

약수터 가는 길

김광규

내가 먼저 죽어야 마누라가 깨끗하게 치워주지
하지만 늙은 홀어미를 자식들이 얼마나 구박할까
마누라 병구완을 하고 무덤이라고 가꾸어 주려면
그래도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오늘따라 오르막길이 숨 가쁘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야 영감이 나를 물어주지
하지만 늙은 홀아비를 누가 곱살갓게 돌봐줄까
수의라도 제대로 입혀 보내고 제사를 챙겨주려면
그래도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한 가수의 콘서트에서 이 시를 들으면서 부부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최근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과거에 비해 길어졌고,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혀 다르게 성장해 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어 50년 이상을 함께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해가 더해질수록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변 사람들이나 상담에서 만난 부부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갖지 못한 특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갖고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기보다 갖지 못한 것을 원하고, 그렇게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적하고 비난하며 지내는 부부들이 많다.

남편이 자상한 성격이라 부인이 외출할 때 데려다 주고, 귀가할 때를 기다려 주는 남편을 둔 부인은 그런 남편의 태도가 짜증난다고 한다. 반대로 남편이 무심해서 부인이 어딜 가던 관심이 없는 남편을 둔 부인은 남편의 무정함에 상처받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 남편과 아이들밖에 모르는 부인을 둔 남편은 “여자가 답답하고,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푸념하고, 활동적인 부인을 둔

남편은 “여자가 너무 나돌아 다닌다”고 화를 낸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것은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이다. 결국 행복한 결혼은 나의 인식과 기대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배우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초혼의 이혼율보다 재혼의 이혼율이 배나 높다는 통계를 보면, 배우자를 바꾸는 것만으로 행복한 결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과 전혀 다른 특성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자신의 기준이 같다면 불만은 생기기 마련이고, 주어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천생연분으로 보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을 살펴보면, 서로에게 “나와 함께해 주어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리 완벽한 배우자가 아닌데도 결혼해 준 것을 고마워하고, 함께해 주는 것에 기뻐한다. “너만 만나지 않았어도...”, “네가 조금만 달라져도...”라고 이야기 하는 부부는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결국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자를 평가하는 자신의 잣대를 변경하는 것이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 마음의 잣대를 새로 만드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부의 결혼만족도 곡선은 첫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낮아지고, 첫 자녀가 출가하는 시점에서 다시 상승하는 포물선의 모양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시간은 첫 자녀가 태어나기 전 2~3년간의 짧은 신혼이 아니라 자녀가 출가를 하고 이어지는 중·노년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약수터 가는 길」이라는 시의 내용처럼 나이 들어갈 수 있다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 싶다. 지금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다시 한 번 쳐다보며,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남편과 아내는 그들 방식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